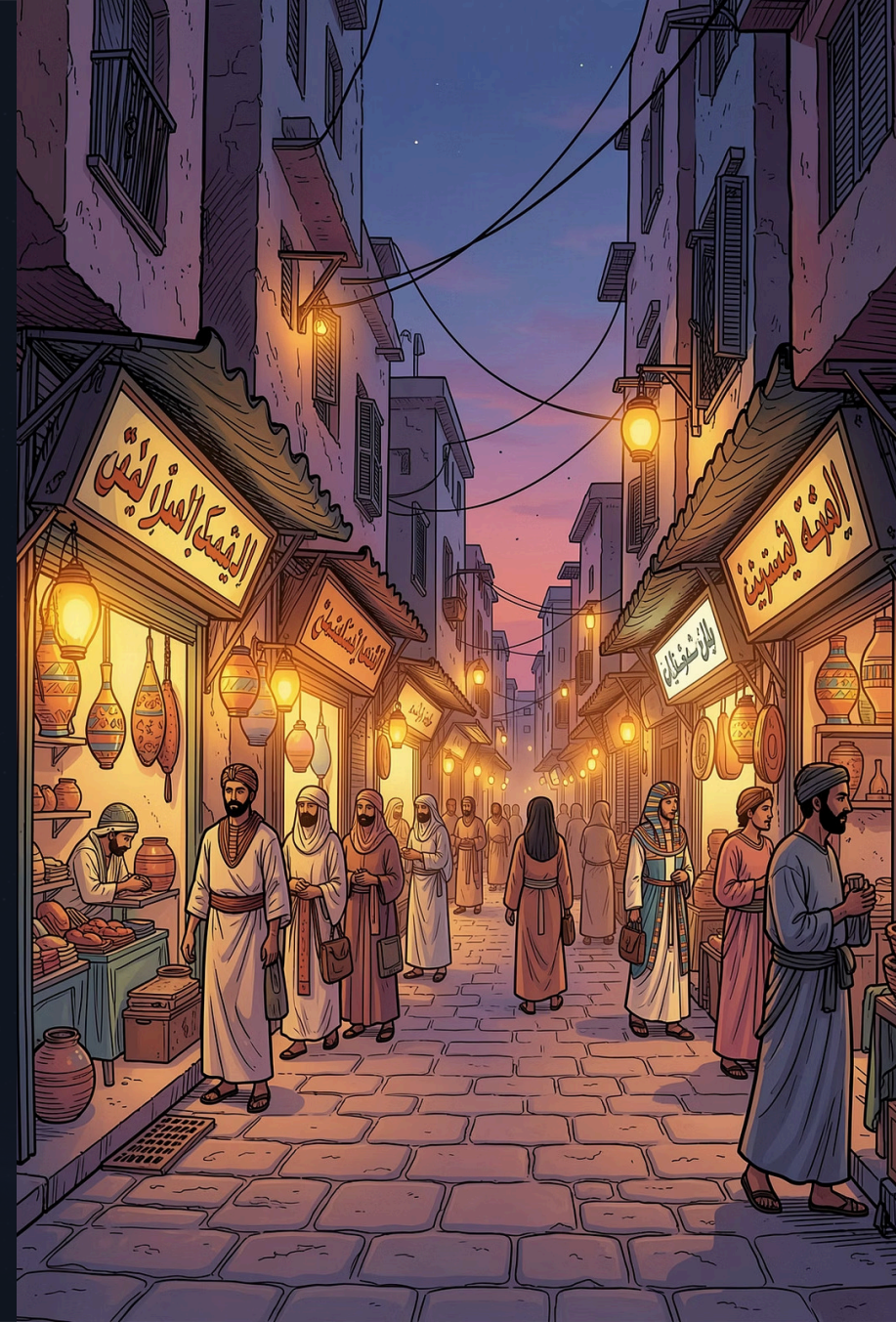


이집트 선교사 소식

2026년 5월 20일 · 박종진, 이미정 선교사

마음 다해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일상으로, 그리고 더 깊은 싸움으로

경제 회복

전쟁의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한동안 밤 9시면 모든 가게의 불을 끄던 일도 이제는 멈추고,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.

각자의 무게

문득 사람마다 견디는 어려움의 모습과 무게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2011년 아랍의 봄 혁명도 겪었고 코로나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.

가장 힘든 싸움

결국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매일 '나 자신'과 싸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.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며, 더욱 중보기도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.



함께 기도해 주세요



→ 순종의 삶

저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.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,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싸움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. 나이가 들어가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
→ 평화의 통치

더불어 온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.

☐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.